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15일 19시 현재)

GWANGJU 2019		금	은	동	합계
1	중국	7	1	1	9
2	러시아	3	1	0	4
3	헝가리	1	0	0	1
4	미국	0	2	1	3
5	멕시코	0	1	3	4
6	이탈리아	0	1	1	2
6	캐나다	0	1	1	2
8	프랑스	0	1	0	1
8	영국	0	1	0	1
8	스페인	0	1	0	1
13	대한민국	0	0	1	1

광주세계수영대회에선 어떤일이...

‘여자선수 몰카’ 日 관광객 출국 정지

●...수구 경기를 준비하던 여자 선수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일본인 관광객이 출국금지 조치됐다. 경찰은 15일 오전 8시30분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일본으로 출국할 예정이었던 일본인 A씨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출입국관리사무소 측에 요청했다. 경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 같이 조치했다. A씨는 14일 오전 11시45분께 광주 광산구 남부대학교 수구경기장 관람객 출입금지구역에서 디지털카메라(DSLR)로 체조 등 준비 운동을 하던 뉴질랜드 여자 선수들의 신체 일부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꽃가게·가방 찾아준 경찰관들 생규”

●...15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광산경찰서 교통안전 3팀은 14일 오후 3시께 “꽃가게를 찾고 있다”는 예브게니 베레진 등 러시아 선수단 임원진 3명을 순찰차에 태워 꽃 구입과 선수촌 복귀까지 도왔다. 12일 오후 7시50분께는 광산경찰 월곡지구대 경찰관들이 개회식 관람차 광주여자대학교를 찾은 한 미국인이 택시 트렁크에 가방을 놓고 내렸다는 신고를 받고 수소문 끝에 주인을 찾아냈다. 이 미국인은 엄지를 치켜세우며 “대한민국 경찰님버원”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남부대 'ICT 체험관' 대회 명소로

●...남부대 주경기장에 위치한 ICT 체험관이 하루 평균 1000명이 넘는 관람객이 찾을 정도로 명소가 되고 있다. 각종 부스가 동심의 세계를 자극하는 가상(VR-Virtual Reality)·증강(AR-Argument Reality) 체험 프로그램으로 채워져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성인들의 호기심도 자극하기 때문. 로봇댄스 공연과 무등산 집라인 가상현실, 스크린을 통한 광주수영대회 경기 중목의 시뮬레이션 등 여러 가지 재미가 넘쳐나소 모두를 즐겁게 해주고 있다. 시민 한정호(42·공군1전투비행단) 씨는 15일 “하루 휴가를 내 딸들과 함께 남부대 경기장 일대를 구경했다”며 “말들이 이곳에 와서 각종 프로그램을 즐기고 있는 것을 보니 무척 흡족하다”고 말했다. 개막일인 12일부터 운영된 ICT 체험관은 마스터스대회가 종료되는 8월 18일까지 31일간 운영된다.

실망하지만, 결선 진출은 너희가 처음이래!

1차 10위·2차 8위까지 진입했지만 3차 시기서 입수 동작 흔들려 12위 역대 최고 성적에 선수들 환한 미소 중 스텐마오-왕한 조 압도적인 1위

GWANGJU 2019 Fina WORLD CHAMPIONSHIPS 조은비(24·인천광역시청)와 김수지(21·울산광역시청)가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다이빙 여자 3m 스프링보드 싱크로나이즈드에서 대한민국의 수영 사상 최초로 결선 진출이라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조은비-김수지 조는 15일 광주 남부대 시립국제수영장에서 열린 2019 국제수영연맹(FINA) 세계수영선수권 다이빙 여자 3m 스프링보드 싱크로나이즈드 결선에서 1~5차 시기 합계 258.75점을 획득, 12위를 마크했다.

작은 실수가 아쉬웠다. 1차 시기를 공동 10위(45.60점)로 시작한 조은비-김수지 조는 2차 시기 91.80점으로 공동 8위까지 진입했다. 그러나 이후부터 순위가 하락했다. 몸을 굽히고 무릎을 접어 양팔로 다리 아래를 잡는 난도 2.7 연기를 시도한 3차 시기에서 입수 동작이 흔들려 12위로 밀렸다. 한 번 꼬인 순위를 더 이상 높이지 못했다.

그러나 눈물을 보일 이유는 없었다. 결선 진출만으로 한국수영에 새 역사를 남겼다. 역대 세계선수권에서 한국이 여자 3m 스프링보드 싱크로나이즈드에서



조은비(위)-김수지 조가 15일 광주 남부대 시립국제수영장에서 열린 2019 FINA 세계수영선수권 다이빙 여자 3m 스프링보드 싱크로나이즈드 결선에서 1~5차 시기 합계 258.75점을 획득해 12위를 기록했다. 종목 사상 최초로 결선에서 공동 연기를 펼치고 있는 조은비-김수지 조. 광주 | 뉴스시스

거둔 역대 최고 성적은 2015년 러시아 카잔에서 김수지-김나미, 2년 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문나윤-김나미가 거둔

13위다. 2013년 스페인 바르셀로나 대회에서 호흡을 맞춰 18위에 올랐던 조은비-김

수지 콤비는 광주에서 값진 기록을 썼다. 이날 오전 진행된 종목 예선에서 1~5차 시기 합계 257.52점을 쌓아 23개 출전국 가운데 11위로 결선에 진입했다.

모든 연기를 마친 둘의 표정은 밝았다. 화창한 미소로 “대~한민국”을 외친 홈 관중에게 손을 흔들며 감사를 전했고, 서로를 다독이고 격려하며 또한 번의 도약을 예고했다. 이를 전(13일) 다이빙 여자 1m 스프링보드에서 깜짝 동메달을 목에 걸었던 김수지는 “훈련량이 조금 부족했다. 그래도 나름의 값진 결과가 나왔다”며 만족의 뜻을 전했다. 여자 다이빙대표팀 맏언니 조은비는 “실수가 많았지만 경기를 잘 마쳤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종목 우승은 예상대로 스텐마오-왕한(중국) 조에게 돌아갔다. 예선에서 309.90점, 전체 1위로 결선에 오른 스텐마오-왕한은 결선에서도 압도적인 기량을 과시하며 342.00점으로 정상에 섰다. ‘다이빙 여제’로 수년간 군림해온 스텐마오는 파트너를 바꿔가며 종목 4연패에 성공했다.

한편 김수지는 남자 파트너 김영남(23·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16일 3m/10m 팀 경기를 펼친다. 모두 6회 진행하는 다이빙 중 세 번은 3m 스프링보드, 나머지는 10m 플랫폼에서 입수 연기를 한다. 조은비는 문나윤(22·제주도청)과 여자 10m 플랫폼에 출전한다.

광주 |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첫 골 쓴 남자 수구, 목표는 사상 첫 승리

(세계선수권 첫 득점)

조별리그 1차전 그리스에 3-26 순위결정전선 수월한 상대 예상

누군가에게는 아주 흔한, 전혀 특별할 것이 없는 장면이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 한 골을 넣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마치 축구의 월드컵처럼 한국수구에 득점은 꿈과 같다.

대한민국 남자수구의 위대한 도전이 인상적인 15일이었다. 광주 남부대 수구경기장에서 열린 2019 국제수영연맹(FINA)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남자수구 조별리그 A조 1차전. ‘유령 강호’ 그리스는 넘기 어려운 상대였다. 2년 전 헝가리 부다페스트 대회 4위였고, 역대 이 대회에서 동메달 두 개를 딴 전통의 수구 강

국이다. 그럼에도 한국은 선전했다. 당당하게 싸워 3-26 패배를 당했다. 0-15까지 끌려가던 3쿼터 3분여가 흘렀을 무렵, 그토록 기다린 첫 골이 터졌다. 김문수(경기도청)가 오른쪽 측면에서 날린 날카로운 슈트가 그리스 골문에 꽂혔다. 한국수구가 세계선수권에서 얻은 감격의 첫 득점에 경기장을 찾은 홈 팬들은 ‘김문수’를 연호하며 열광했다. 한 번 물꼬를 트자 다음은 좀더 수월했다. 4쿼터는 김동현(경기도청)의 차례였다. 4분대에 연속 득점에 성공했다.

김문수는 “본래 슈트를 시도할 상황은 아니었는데, 혼자 판단해 공을 던졌다. 이렇게 이름이 크게 올라야 함성을 받은 적이 없다. 너무 기뻐다”고 환하게 웃었다.



대한민국 남자수구가 15일 광주 남부대 수구경기장에서 열린 2019 FINA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별리그 A조 1차전에서 그리스를 상대로 당당하게 싸웠다. 비록 3-26으로 대패했지만 세계수구 강국의 일전에서 귀중한 득점을 올리며 김동현을 자아냈다. 3쿼터에서 김문수(왼쪽)가 그리스 수비진을 뚫고 첫 골을 터뜨리고 있다. 광주 | 뉴스시스

진정한 도약을 노리는 남자수구의 이번 대회 목표는 분명하다. 득점이 아닌, 승리다. 조별리그는 어렵더라도 순위결정전은 한결 수월한 상대와 부딪힌다. 남자수구는 1986년 서울, 1990년 베이징 아시안게임에서 각각 은, 동메달을 땀

만 이후 빠르게 쇠퇴해 선수 확보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안방 세계선수권에서 내일의 희망을 찾으려 한다.

자신감을 얻은 한국은 부다페스트 대회에서 동메달을 딴 세르비아와 17일 대회 2차전을 치른다. 광주 | 남정현 기자

입촌하는 세계의 물개...광주가 달아오른다

슈퍼스타 쏘양 이미 선수촌 입성 도핑 전력 비탄 호튼과 대결 관심 레데키·드레셀 내일 나란히 입국 한국의 인어 김서영도 입촌 예고

2019 국제수영연맹(FINA)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꽃은 단연 경영 경기다. 지구촌 최대 스포츠 이벤트인 하계올림픽에서도 육상과 함께 가장 큰 인기를 모은다. 아시아에서 세 번째로 개최된 광주대회에서는 2주차 경쟁이 시작되는 21일부터 경영 경기가 일제히 시작한다.

각국 선수단의 입국 시기가 나뉘는 배경에도 대회 후반부에 진행되는 경영 경기가 있는데, 광주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슈퍼스타는 단연 쏘양(28·중국)이다. 14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경쟁자들보다 빨리 입국한 그는 이날 오후 늦게 광산구에 마련된 챔피언십 빌리지(선수촌)

에 입성했다. 쏘양이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세부 경기는 자유형 400m, 200m다. 출전 종목을 놓고 거듭 고심하다가 대회가 막을 올린 12일야 결정을 내렸다. 자신이 세계기록을 보유한 자유형 1500m는 불참하기로 했다. 세계선수권에서도 2011년 상하이, 2013년 스페인 바르셀로나 대회에서 2연패를 했다. 이처럼 최고의 영예를 얻은 종목을 포기한 대신 쏘양은 200m, 400m에 더해 800m까지 출격한다.

쏘양의 최대 경쟁자는 리우올림픽 400m 우승자 맥 호튼(23·호주)이다. 3년 전 리우에서 “금지약물을 복용한 선수와는 인사를 나눌 필요가 없다”며 도핑 전력이 있는 쏘양을 저격한 그와의 장외전쟁이 벌써 시작됐다.

한국의 유력한 메달 후보로 거론되는 여자 개인혼영 김서영(25·경북도청)은



17일 선수촌에 입촌한다. 한국선수 최초로 2017년 대회에서 여자혼영 200m 결승에 진출, 6위에 올랐다. 지난해 자카르타-팔렘방아시안게임에서는 금메달 1개(혼영 200m), 은메달 1개(혼영 400m)를 목에 걸며 ‘인어공주’가 됐다. 경영 경기가 시작될 21일 혼영 200m에 나선 뒤 폐막일인 28일 혼영 400m에 출격한다.

2013년 스페인 바르셀로나 대회부터 최근 3회 연속 여자 자유형 400m·800m·1500m를 평정하고 리우올림픽 3관왕에 오른 케йти 레데키(22)와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남자부 7관왕에 등극, 역대 단일대회 최다관왕 타이틀 이룬 카엘렘 드레셀(23·이상 미국)은 17일 오후 광주와 인접한 무안공항을 통해 입국한

다. 현재 미국 경영 선수단은 동남아시아에서 몸을 풀고 있다. 싱가포르에 짧게 머물며 시차에 적응하고, 컨디션 조율을 하며 결전의 순간을 기다린다.

대회 조직위원회는 FINA와 조율을 거쳐 워밍업을 위한 훈련 풀(Pool)을 제공한다. 첫 경기 닷새 전부터 국가별로 일정 시간을 정해 모든 출전국 선수단이 동일하게 몸을 풀 수 있도록 배려할 계획이다. 이 기간 광주를 찾은 외신의 숫자도 크게 늘어난다. 중국 국영방송 CCTV의 한 스태프는 “다이빙도 우리가 강한 편이라 지금도 꽤 많은 인원이 이곳(광주)에 머물고 있지만 경영은 비교하기 어렵다. 쏘양의 동선과 함께 할 전담 취재팀도 있다. 대규모 인력이 광주로 향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대회 관계자는 “아직은 빈 자리가 꽤 많이 보이더라도 경영은 1만 관중이 문 제였다. 광주 이외의 지역에서 내려올 손님들도 훨씬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광주 | 남정현 기자